

(본 보도자료는 2004년 6월 9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환경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보 도 자 료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산업폐기물과 (02-2110-6938)
	2004. 6. 7(월)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 자원개발과 (02-2110-5431) 건설교통부 도시국 건축과(02-2110-8172) 산림청 산림정책국 산지관리과 (042-481-4145)

자료대표생산 : 국정홍보처

전국 방치 폐기물 정부차원 대대적 정비

- 사업장폐기물, 폐건축물 등 '환경저해 방치물 처리대책' 발표

국토에 쓸모없이 버려진 각종 사업장폐기물 등 방치물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대적 정비가 이뤄진다.

정부는 환경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산림청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환경저해 방치물 처리대책'을 마련, 기업부도로 버려진 사업장 폐기물,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 농촌 폐비닐 등 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방치물을 종합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의 정비 대상은 △사업장 폐기물 81만3천톤 △농촌 폐비닐 11만톤 △휴·폐 광산 101개소 △방치 건축물 3만여동 △산림훼손지 22개소 343ha 등이다. 정부는 환경저해 방치물 처리를 내년까지 마무리짓기로 하고, 폐비닐 수거 보상비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한편, 북한과 폐비닐 임가공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사업장 방치폐기물

IMF 이후 부도 등의 이유로 방치된 81만 톤의 사업장 폐기물(45개 사업장)은 2005년 말까지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남은 폐기물 가운데 29개 사업장의 71만 톤은 사업자와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조치명령을 통해 조속히 처리하고, 나머지 16개 사업장 10만 톤은 총 122억원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으로 우선 처리한 후 그 비용을 추징할 계획이다.

□ 농촌 폐비닐 수거·처리

농촌에 버려져 환경오염과 미관을 해치고 있는 폐비닐 처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 폐비닐 수거량을 늘리기 위해 수거보상비를 kg당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효율적 수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수거사업자 참여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수거된 폐비닐 처리량을 늘리기 위해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습식 처리시설(1만2000톤/년 용량)을 7월에 추가적으로 건설하고, 경제성이 낮은 저급 폐비닐은 시멘트소성로 연료화, 소각 등 민간 처리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과의 경제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남측은 재활용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폐비닐을 공급하며, 북측은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고 재활용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대북 폐비닐 임가공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협력방안은 현재 자원재생공사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간에 논의중에 있다.

□ 휴·폐광산 방치폐기물 처리

정부는 전국 906개의 광산에 버려진 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2007년까지 4개년 계획을 세워 29개 광산을 대상으로 배수로, 댐, 옹벽 및 침출수 정화시설 등 오염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구가 시급한 14개 광산에는 123억원을 투입해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5개 광산은 2007년까지 200억원을 투입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방치된 건축물 처리

정부는 또 건축폐기물 처리를 위해 농어촌·광산촌의 빈집은 미관상의 문제가 적은 만큼 우선 개축이나 수선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농어촌개량사업, 폐광지역진흥지구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환경을 정비할 방침이다.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은 7월까지 안전·환경유해등급 평가를 거쳐 시급한 것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수립해 시정조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도 등으로 인해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 예치토록 하는 제도를 금번 건축법 개정시 반영한다.

□ 채석장 등 산림훼손지 복구

채석·채광이 진행되는 곳 중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은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하며, 중단 방치된 훼손지에 대해서는 국고와 지방비를 들여 내년까지 복구를 완료해 산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로 했다.

< 별첨자료 1 >

1.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대책(환경부)

□ 현황 및 문제점

- '98년 IMF사태 이후 부도업체가 다수 발생하면서 '03년말까지 881개 업체에서 2,473천톤의 방치폐기물 발생
- 방치폐기물은 환경오염과 미관저해 요인이 되고 있으나, 부도업체가 처리능력이 없고, 그 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비

□ 그간의 추진사항

- 방치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사전에 확보하는 이행보증금제도 마련 ('99.2, '03.5 폐기물관리법 개정)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업체에 「공제조합가입(분담금 납부)」, 「보험가입」, 「보증금예치」 중 한가지 방법을 이행하도록 규정
 -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업체의 부도 등으로 방치폐기물 발생시는 예치된 분담금·보험금·보증금으로 처리
 - ☞ 폐기물처리업체 : 소각·매립 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
 - 재활용업체 :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생원료·제품 등을 생산
- 부도사업장이 인수되거나, 토지소유자가 처리 가능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통해 인수자·소유자가 처리
- 처리의무자가 불분명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지자체별로 행정대집행 처리
- ☞ '03년말까지 총 발생량 2,473천톤 중 1,660천톤(67%) 처리

※ 총 발생량 : 2,473천톤	이행보증금 집행	: 351천톤(14%)
	조치명령	: 873천톤(35%)
	행정대집행	: 436천톤(18%)
	잔여량	: 813천톤(33%)

□ 향후 추진대책

○ 잔여 방치폐기물 45개소 813천톤은 '05년까지 처리완료

- 부도사업장 중 인수자, 토지소유자가 명확하여 처리 가능한 29개소 718천톤(잔여량의 88%)은 인수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처리(조치명령)

※ 인수자 처리 : 172천톤(18개소), 토지소유자 처리 : 486천톤(7개소), 행위자 등 처리 : 60천톤(4개소)

- 인수자가 없고 토지소유자도 처리할 수 없는 16개소 95천톤(잔여량의 12%)은 총 122억원(국고 50%지원)을 투입,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으로 처리

※ '04년 16억원 기 확보(31억원 추가확보 추진 중), '05년 14억원 계상 예정

○ 잔여폐기물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기술지원

- 대상 사업장별로 해당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책임관리자로 지정

※ 분기별 진행상황 점검, 처리의무자 독려, 행정대집행방안 강구 등 중점관리

- 폐기물재활용기술지원단을 구성('04.4, 한국자원재생공사, 20명)

※ 폐기물 발생업소, 재활용업소 및 지자체에 대한 자원화기술 및 정보지원

- 방치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장기저리 융자지원('04년도 예산 600억원 기확보)

2. 농촌 폐비닐 수거·처리 대책(환경부)

□ 현황 및 문제점

- 농촌 폐비닐이 매년 3~4만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03년말 현재 전국에 39만톤이 적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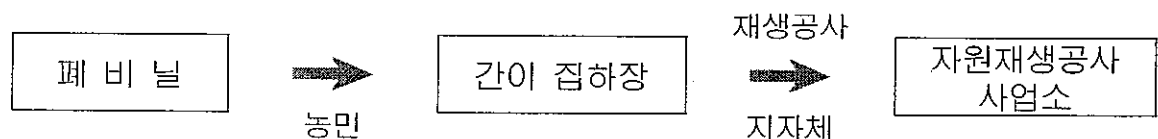
- '03년도 농촌 폐비닐 발생량 26만톤 중 15만톤(58%)만이 수거되고, 미수거된 11만톤(42%)은 노천 소각되거나 방치

- 농민의 고령화와 책임의식 부족 등으로 자발적 수거 참여가 부족하고 폐비닐 수거체계 미흡 등으로 수거실적이 저조
 - 수거된 폐비닐도 처리시설 부족과 폐비닐로 생산된 합지박, 정화조 등 재생제품의 수요 감소로 처리실적이 저조

□ 그간의 추진사항

○ 농촌 폐비닐 수거체계 정비 및 수거장비 확충

- 소규모 마을단위로 간이집하장까지 농민들이 수거하고, 비용을 보상하는 「마을단위 이장책임 수거보상제」를 '03년부터 본격 추진('03년도 42억원 수거보상비 지급 : 평균 50원/kg)



- 신속한 수집·운반을 위해 자원재생공사 및 지자체에 수거차량 288대 확보('03년 78대 구입)

○ 폐비닐 처리량 증대를 위한 처리시설 확충

-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습식처리시설(4개소 21천톤/년)과 간이처리 후 매각하는 간이압축시설(7개소 54천톤/년) 운영중

□ 향후 추진대책

○ 농민의 자발적 참여 촉진을 위해 수거보상비를 대폭 인상(50원/kg→130원/kg), 방치되는 폐비닐 수거율 제고

- 수거보상비 예산 : 42억원('03) → 105억원('04년도 국고 26억원)
-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수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 수거사업자 참여방안도 추진('04년 중 1~2개 군지역 대상 시범사업)

○ 처리방법을 다양화하여 적체 폐비닐을 조속 처리

- 플라스틱원료를 생산하는 습식처리시설 증설('04.7월, 12천톤/년)

- 경제성이 낮은 저급 폐비닐은 시멘트 소성로 연료화(26천톤), 민간 소각시설에서의 소각(1천톤) 등 민간 처리방안 강구
- 대북 폐비닐 임가공사업 추진('04.5.6~13 환경부·자원재생공사 직원 방북 조사)
 - 북한은 인건비가 낮고(5~7천원/월), 폐비닐로 생산하는 합지박, 정화조 등 재생제품의 수요가 많아 사업전망이 밝음
 - 자원재생공사와 민족경제협력연합회(북한)간의 협력사업으로 현지공장 설치·운영방안 협의 중
 - 남측 : 재활용시설 건설지원 및 농촌폐비닐 공급
 - 북측 : 재생 플라스틱 원료 생산, 재활용제품 생산·공급
- ⇒ 연 4만톤 수준의 농촌 폐비닐 처리전망('04년중 사업계획을 협의·확정하여 착공 추진)
- 그 외 중국, 동남아지역에 폐비닐 수출확대 추진('04년 2만톤 목표)

3. 휴·폐광산 방치폐기물(광미) 처리대책(산업자원부)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의 광산(906개)에 대한 방치폐기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01개 휴·폐 광산에서 광미 발생
 - '95~'97년도 1차 조사결과 72개 휴·폐 광산에서 광미유출로 오염발생
 - '02년 2차 조사결과 29개 휴·폐 광산에서 광미유출로 오염발생

□ 그간의 추진사항

- '95~'02년까지 72개 광미유출광산에 132억원을 투입하여 휴·폐광산 방치폐기물 오염방지사업 완료
- 댐·옹벽·배수로 및 오염침출수 정화시설 등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차단 격리
 - ※ 나머지 방치폐기물 오염방지사업대상은 29개 광산임

□ 향후 추진대책

- '03~'07년까지 29개 광산에 대한 오염방지사업 추진
 - '03~'04년중 시급한 14개소에 123억원을 투입, 복구사업 진행 중
 - 나머지 15개 광산은 '07년까지 200억원을 투입, 정비완료
- 지자체 및 광산보안사무소로 하여금 문제의 방치폐기물 현장을 사전 조사하여 대응방안 마련

4. 방치된 건축물 처리대책(건설교통부)

□ 방치건축물 현황

- 농어촌·광산촌 주민의 거주지 이전으로 공가가 되거나, 착공 후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방치된 건축물 발생
 - 기존건축물 공가 29,239동(주택 28,072, 기타 1,167)
 - 공사중 방치건축물 843동(주택 445, 기타 398)

□ 향후 추진대책

- 기존건축물에 대한 정비
 - 농어촌 및 광산촌의 공가는 소유주가 있고 미관상 문제가 적으므로 우선 개축·수선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필요한 지역은 농어촌 개량사업, 폐광지역진흥지구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환경정비
 -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있는 건축물은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지자체가 수선·철거 등 조치
- 공사중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조치
 - 사업자 부도 등으로 공사중 방치된 건축물은 금년 7월까지 유해등급을 분류, 우선 안전진단·수선 등 시정명령하고 장기간 방치시 지자체가 단계적으로 환경 및 안전조치
- 앞으로 방치 건축물 발생시 처리를 위한 예치금제도 도입
 - 부도 등으로 인해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 예치토록 하는 제도를 금번 건축법 개정시 반영

- 착공신고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예치금을 납부토록 하고, 시정 명령 불이행시 지자체가 집행
- ※ 건축법개정 입법예고중(일정규모 이상 대상 : 총공사비의 3%범위내 차등)

5. 채석장 등 산림훼손지 복구대책(농림부)

□ 현황 및 문제점

- 채광·채석 등 대규모 산림훼손이 있을 시 경관을 저해하거나 재해발생 우려
- 지금까지 대부분 복구를 하였으나, 수직 절개면에 대한 복구의 어려움, 복구비 부족 등으로 복구가 미흡한 사례도 발생

□ 그간의 추진사항

- 2001년부터 2년간에 걸쳐 채광·채석지에 대한 일제복구 추진
 - 국무조정실·산자부·산림청 합동으로 현지조사 후 126개소(307ha, 총 345억원 투자)에 대한 복구사업 완료
- 산지의 무분별한 훼손 및 훼손 후 중단·방치하는 사례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정('03.10.1시행) 등 제도개선
 - 채석허가기준 강화, 복구기준 보완, 재해방지명령제 도입 등
 - 복구비 예치금 상향조정(ha당 복구비 : '01년 71백만원 ⇒ '04년 149백만원)
- 대통령님 지시 후 추가복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산림청, 시·도 합동(30명)으로 현지조사('04.4.20~5.7일)
 - 조사결과 총 22개소, 343ha가 복구 필요한 것으로 파악

□ 향후 추진대책

- 채석·채광이 진행되는 개소 중 경관저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원인자 부담으로 중간복구(12개소, 323ha, 634억원)
- 중단·방치된 훼손지에 대하여는 국고·지방비를 투입하여 '05년중 복구 완료(10개소, 20ha, 30억원)

[참고자료: 환경부]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연도별 현황

(천톤)

구 분	발생량		처리량		잔량누계 (a-b)	비고
	당해년도	누계(a)	당해년도	누계(b)		
1998	1,417	1,417	43	43	1,374	
1999	105	1,522	49	92	1,430	
2000	188	1,710	301	393	2,101	
2001	201	1,911	496	889	1,022	
2002	390	2,301	387	1,276	1,025	
2003	172	2,473	384	1,660	813	

□ 연도별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현황

구 분	계	'98	'99	'00	'01	'02	'03
업체수	26	3	3	5	8	4	3
폐기물량 (천톤)	134	1	1	75	20	31	6
대집행비 (국고, 백만원)	3,286	187	134	922	569	1,279	195

□ 폐기물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

(천톤)

구 분		발생량	처리량	잔 량	비 고
총 계		2,473	1,660	813	
지정	소계	18	18		
	금강청	2	2		
	낙동강청	7	7		
	영산강청	2	2		
	경인청	3	3		
	대구청	4	4		
일반	소계	2,455	1,642	813	
	서울	2	2		
	부산	28	20	8	
	대구	2	1	1	
	인천	439	73	366	
	광주	8	8		
	대전	7	7		
	울산	32	9	23	
	경기	425	342	83	
	강원	24	24		
	충북	108	45	63	
	충남	92	92		
	전북	68	68		
	전남	26	26		
	경북	57	55	2	
	경남	1,116	870	246	
	제주	21		21	

농촌폐기물 발생 · 처리 및 시설현황

□ 폐비닐 발생 및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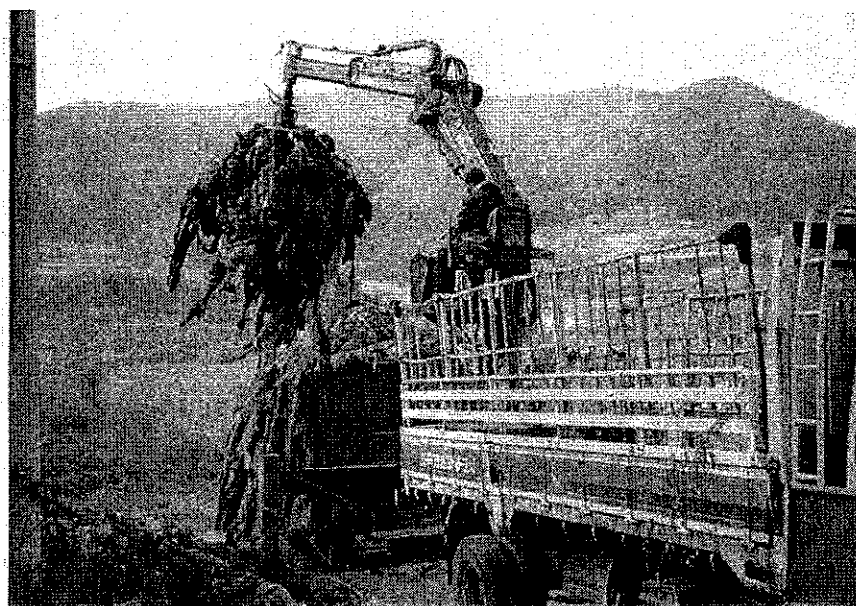
(천톤)

연도	발생량	수 거 량	처리량	미처리량
계	3,663	1,800	1,409	394
'99까지	2,665	1,279	999	280
'00	238	114	92	22
'01	238	121	95	26
'02	261	135	109	26
'03	261	151	114	40

□ 폐비닐처리시설 현황

구 분	위 치	시설용량 (천톤/년)	준공일	처리방식
총 계		33		
<기 존>				
계	4개소	21		
청 주	충북 청원군 북이면	5	'88.10.27	습 식
안 동	경북 안동시 임하면	5	'91.11.15	
담 양	전남 담양군 금성면	5	'93. 9.11	
시 화	경기 시흥시 시화산단	6	'95.12.20	
<증 설>				
계	1개소	12		
정 읍	전북 정읍시 정읍 제2공단 16블록	12	'04.7월 예정	습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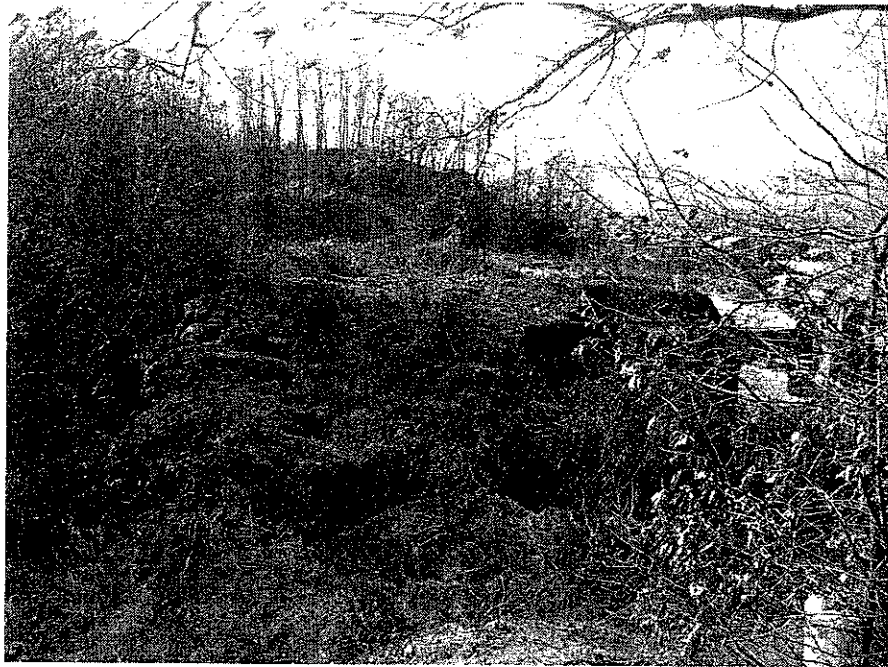
농촌폐비닐 수거장면



방치 폐기물 처리전후 사진

<대신산업,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처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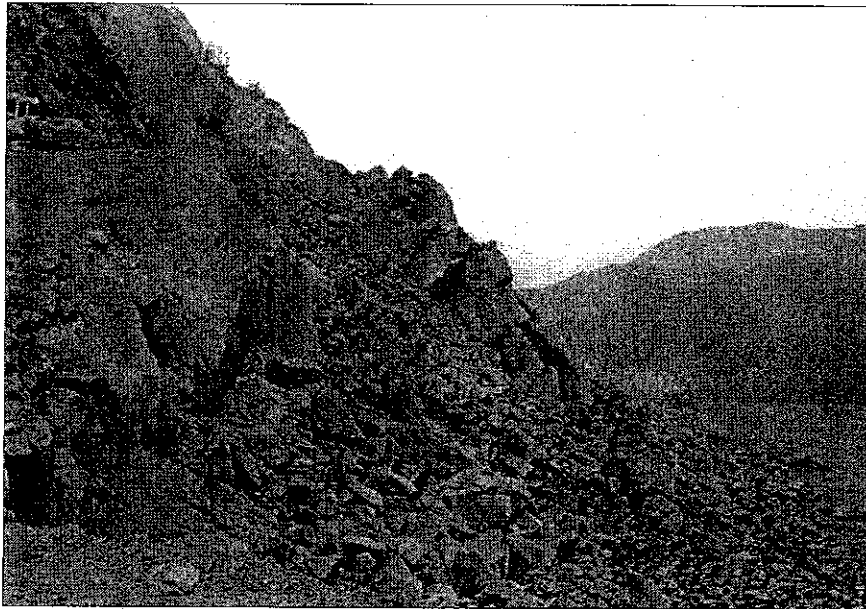
<처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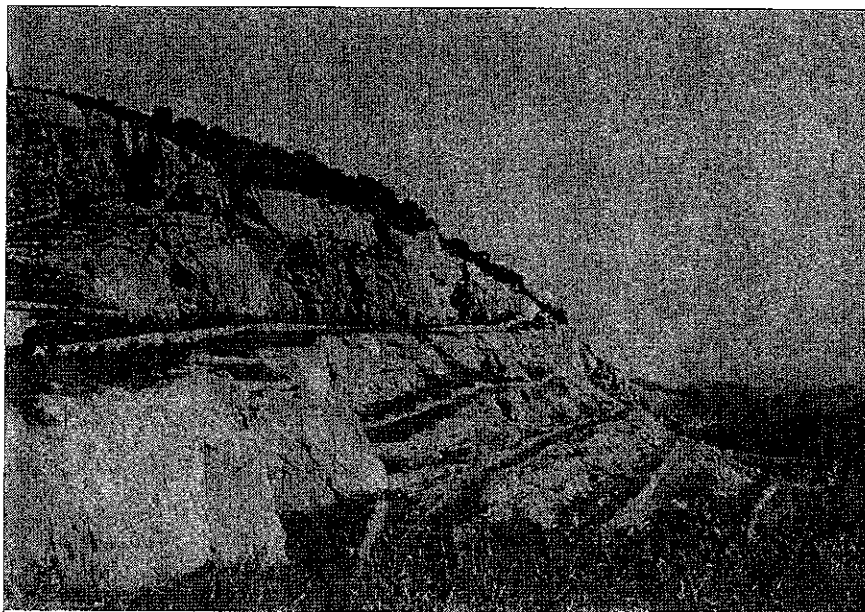
사진자료3

- 현 황 : 채석장(경남 김해 주촌 원지 산75)
- 면 적 : 70,210m²
- 사 업 비 : 520백만원(지방비 10%, 사업자 90%)
- 복구공법 : 지반정리후 소단(小段)을 설치하여 나무심기, 씨뿌리기

<복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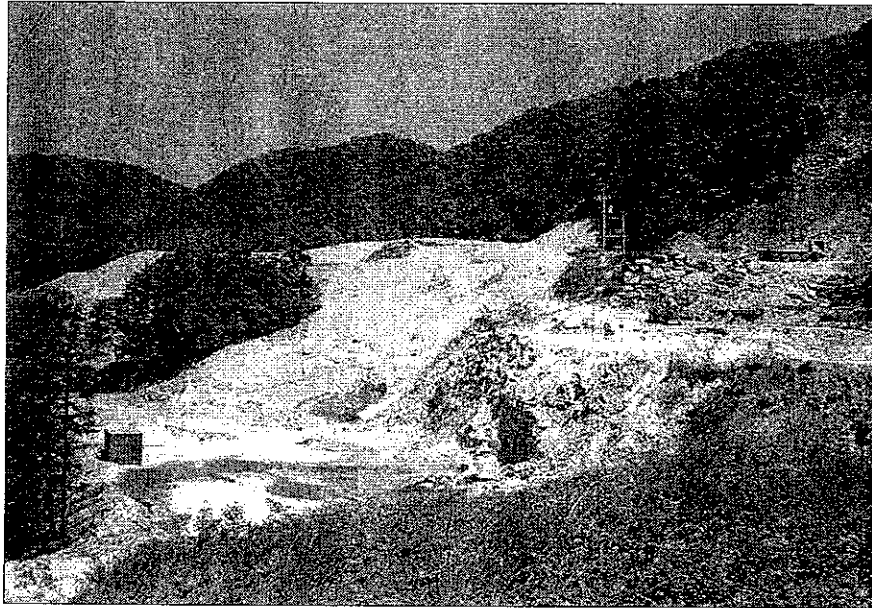


<복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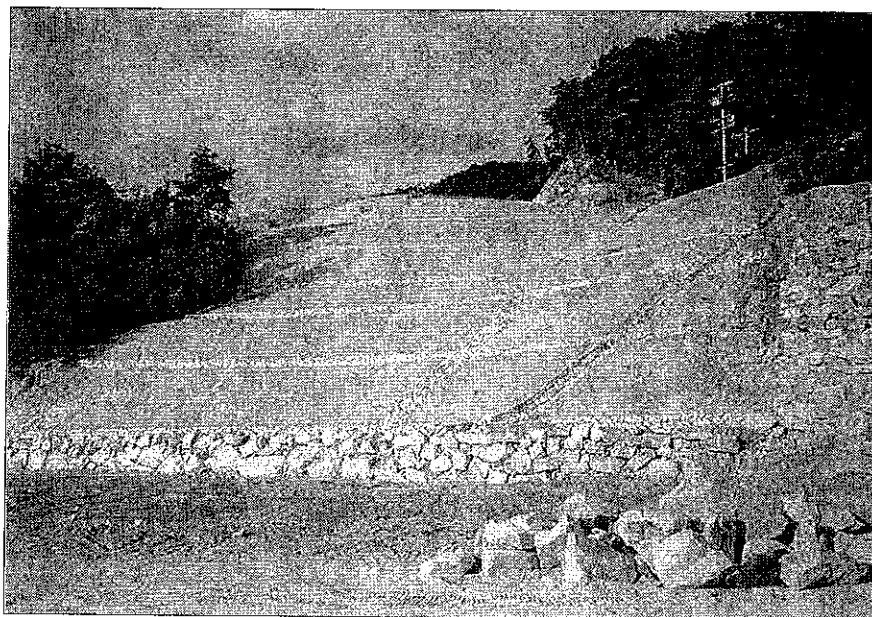


- 현 황 : 채석장(강원 원주 귀래 산45-1)
- 면 적 : 4,470m²
- 사 업 비 : 30백만원(사업자 부담으로 채석이 부분적으로 완료된
지역을 중간복구)
- 복구공법 : 절개면 성토(盛土)후 돌 수로(水路)내기 및 나무심기

<복구전>



<복구후>



〈현장취재 참고자료〉

환경저해 방치물 위치(예시)

□ 사업장폐기물(환경부)

- 업체명 : 동궁산업(주)
- 위 치 :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내
- 방치폐기물 종류 : 폐합성수지
- 방치량 : 35,000톤
- 처리완료예정일 : '05년말
- ☞안내자 : 인천광역시청 청소행정과 이태호(032-440-3563)

□ 폐광산(산업자원부)

-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낙동광산
- 사업내용 : 광미(7,400 m^3) 유실방지사업 추진

□ 방치건축물(건설교통부)

- 공 가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3리 543번지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3리 549-1번지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3리 554번지
- 공사중단 사업장

소재지	동수	층수	세대수	현재 공정률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120-10외 3	4	9	192	20% (3층 골조공사)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석정리 산60-5	9	5	286	10% (2층 골조공사)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산45-1외 11	6	15	1,174	85% (15층 골조완료)

□ 채석장(산림청)

○ 경기 포천군 동교동 산45-4번지외1필

- 채석허가면적 : 17ha
- 복구완료예정일 : 2004. 8. 15
- 사업자 : 원우 아스콘(대표 임익환)전화 (031) 541- 2341
- ☞ 안내자 : 포천군청 산림과 한록(휴: 017-366-6037)
사무실전화 (031) 530-8344

○ 경기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산 160외 17필

- 채석허가면적 : 40ha
- 복구완료예정일 : 2004. 12월
- 사업자 : 삼포산업(대표 김호) 전화 (031) 356-4376-8
- ☞ 안내자 : 화성시청 허가과 문형남(휴: 017-767-8840)
사무실전화 (031) 369-2345